



협회 부회장 이 한 승  
〈삼우건설조경 대표〉

### “메타세쿼이아의 생산 보급의 선구자”

“지역의 무의탁 노인 요양소와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는 지역 유지이며, 2002년 월드컵 경기때는 광주구장의 잔디와 조경공사를 전국 구장중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마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젊은 학생들에게 조경업은 계속 촉망되는 유망 직종이라는 희망을 주고자 매년 각종 학술대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삼우건설조경을 찾아서

김 해 응 글·사진

이름조차 생소하고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나무. 그러나 지금은 가로수나 공원 또는 아파트는 물론 주택가까지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추형으로 짙은 녹색의 나무이며 특히 전라남도 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전국에서도 유명 명소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30여년 밖에 안된다.

삼우건설 조경의 이한승 대표는 일찍이 대학 재학부터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여 20대 총각시절에 조경수로 많은 돈을 벌은 전라남도과 광주직할시 지역에서는 젊어서부터 이름난 조경인 이었다. 이한승대표는 학교도 조경수 재배와는 거리가 있는 성균관 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왔지만 조경수와 인연이 되려고 하였나, 당초부터 운명적으로 조경업을 하게끔 태어난 것인가, 대학재학시절 호기심 겸 취미 겸으로 철쭉과 동백, 배롱나무등 조그만 관목류를 삼목하여 생산 해오다 나무를 키우는 재미도 있고 당시는 별로 알려지지 않던 조경업이지만 산업의 발달과 생활이 윤택하여지면 번창해지고 수익성도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전공과는 거리가 먼 조경수 재배에 뛰어들었다.

메타세쿼이아는 중국의 사천성과 호북성 경계의 양자강 지류지역 산골에 자생하는 대형 교목으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자생하였다는

흔적이 포항지역의 화석에서 발견 되었지만 그 후 기후의 변동 때문에 사라져 볼 수가 없었던 것을 1960년도에 광주직할시 지역에서 조경업을 하시던 정화도씨가 일본에서 묘목23본을 들여와 재배한 것을 보고 그 멋진 수형에 반해 1968년도에 분양을 받아 본격적으로 삼목에 의한 대량번식을 학생 시절에 시도 하였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삼목생산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학교의 전공과목 역시 조경업과는 판이한 상과 대학생이 삼목생산이 어찌 어렵지 않았을까 마는 젊음의 열정과 노력으로 실패를 거듭하다 성공하여 1000평의 포지에서 1970년부터 연간 10만본의 묘목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1976년에는 가로수용 대목을 납품하였으며 1977년도에 단순 재배에서 조경공사를 시작 현재 조경공사 수주 전국 5위내에 드는 대형 조경회사를 가지게 되었다.

처음 부친의 토지에 방학 때와 주말을 이용하여 틈틈이 시작하던 조경수 삼목 생산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조경수 붐과 메타세쿼이아의 인기에 힘입어 그때 수익금으로 우선 지금의 삼우건설 조경의 모체가 된 함평군 월야면 증산리에 30ha의 포지를 구입 대량의 조경수 생산포지를 일구었으며 이후 장성군 진원면에 20ha, 곡성군 옥과면에 10ha 등 현재 60ha의 조경수 포지를 갖게 되었다. 당시 젊은 총각이 조경수 재배로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는데 이한승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경수의 좀 더 폭넓은 재배와 판매를 위해 일본과 미국에 눈을 돌려 당초 메타세쿼이아 묘목을 구입해온 일본에 대량 생산된 묘목을 역수출하게 되었으며 좀 더 욕심을 내어 미국산 상록 메타세쿼이아를 수입 판매코자 대량 증식하여 재배



▲ 농장전경



▲ 농장전경



▲ 시설양묘재배



를 확대 하였으나 추위에 약한 수종이란 것을 몰라서 많은 손해를 보고 실패한 경험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유명한 담양 가로수길 등 전국의 각지에서 자라고 있는 대경 메타세쿼이아의 70-80%는 자기가 키워낸 묘목이 자라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뻘뻘하다. 이번 회원 농장방문은 삼우건설 조경의 여러 곳 농장 중 가장 모체가 되는 함평군 월야면 증산리 농장을 찾았다. 이곳 농장



▲ 철쭉류



▲ 소나무재배와 하부공간 이용 포트 재배



▲ 가이즈까향나무

은 약 30ha 정도이나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떨어져 자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산이 적은 평야 지대로 산도 농지도 아닌 약간 둔덕진 언덕배기에 넓게 자리 잡은 농장은 대경목 조경수의 재배지와 묘목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생산 포지가 조화 있게 어우러진 그러면서도 한 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고 활용하는 나무사이 좁은 공간에도 여기저기 포트 묘목이 자라고 있다.

현재 삼우 조경에서 가장 주력 생산하는 것은 남쪽지방의 자생 상록수인 먼나무, 구실잣밤나무, 굴거리, 홍가시, 후피향, 다정큼, 애기동백등을 10만본 이상 매년 생산해내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이 잘 안하고 있는 진달래, 조록싸리, 국수나무등 자생수종을 포트 재배로 자연 복구 공사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마침 농장을 찾아 가던 날에도 난대 상록수의 포트 작업이 한창 이었다.

이 곳 삼우조경 월야 농장은 오래된 농장답게 수종별로 자리를 잡아 특색 있게 잘 손질되어 가꾸고 있으며 메타세쿼이아의 최초 보급지답게 아직도 메타세쿼이아와 가이즈까향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등 20여종의 주요 조경수가 각각 1만여 본씩 멋지게 자라고 있었다.

또한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찾아 내는 이한승 회장은 조경공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요즘 문제가 되는 죽은 하천의 친환경적인 복원 공사를 위하여 호남대학교와 공동연구로 자생풀포기 이식공법과, 폐기 벌목재나

그루터기 이식 공법을 연구하여 특허 출원을 받아 무등산 공군부대 철거지를 자생풀포기를 이용한 복원과 장흥군에 있는 탐진강댐 배면부의 복구에 그루터기 공법을 적용 친환경적인 복원 조경공사로 많은 칭송과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죽어가던 도시 하천인 영산강, 낙동강, 진주천을 자연 하천으로 복원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주었다.

항상 새로운 조경 소재를 발굴하고 신기술 공법을 연구하고자 노력하는 이한승 대표는 현재 호남지역의 환경생태학회, 호남 조경 학회, 복원 녹화 학회의 부회장을 맡아 파괴된 자연을 복원 하는데 앞장서서 연구하고 노력하여 2005년에는 목포 대학에서 명예 조경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우리 조경수 협회에는 비교적 늦은 1998년에 가입하였으나 남다른 열의와 노력으로 현재 본회 부회장직을 맡아 본인이 습득한 새로운 조경공법이나, 유망수종의 발굴 보급, 선진국들의 신품종 개발이나 조경기술등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등 조경수 협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주)한국조경수 협회 광주전남지부 조경수 유통센터를 건립 하는데 고가의 부지 3000평을 무상으로 임대 유통센터를 건립 운영케 함으로써 협회 발전은 물론 광주 전남지역의 조경수 생산자와 조경공사업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한 공로로 2005년 4월 5일에 국가 산업훈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식목일 행사시 전남과 광주지역에 포트 묘목인 진달래등 자생수종등을 2000여본씩 기증하고 있으며 지역의 무의탁 노인 요양소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후원금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는 지역 유지이며 2002년 월드컵 경기때는 광주구장의 잔디와 조경공사를 전국 구장중 제일 먼저 성공적으로 마쳐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를 치룰 수 있게 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젊은 학생들에게 조경업은 계속 촉망되는 유망 직종이라는 희망을 주고자 매년 각종 학술대회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처음 대학시절에 전공과도 먼 조경수 재배를 취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어언 40년 이제 전국 굴지의 조경회사로 키웠고 집안 역시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 부인 김경숙(56세)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전남대학에서 조경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가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같이 일하고 있으며 딸은 멀리 독일에 유학하여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성공한 조경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



▲ 농장전경



▲ 농장전경